

- ② 普門寺址에는 二基의 幢竿支柱가 있는 바 金堂址 西南方 約三〇〇m 거리에 있는 一基가 寶物 二二三號로 指定되었고 北方 部落附近에 있는 一基는 指定되지 않았으나 兩柱 外側 上面에 圓形 蓮花文이 있어 特殊한 手法을 보여주고 있다.
- ③ 金堂 北方 約八〇m 논쪽에 묻혀있다. 寶物 第六四號로 指定되었다.

④ 東塔址는 實測結果 現 石堆의 中心點과 實測에 依한 推定 中心點이 合致하지 않아 現 石堆는 塔 中心에 다 若干 南方으로 偏在해 있다.

그리고 石堆上面을 試掘해 보았으나 아무 遺構도 發見하지 못하였다.

⑤ 藤島博士는 石燈 臺石으로도 比定하였으나 圓座만으로 해서도 石燈 臺石은 될 수 없다.

⑥ 圓座뿐 아니라 蓮花 乃至는 밑의 舍利孔의 尺數를 보아도 모두 唐尺을 使用하였음을 볼 수 있다. 例를 들면 蓮花文 徑 四·〇九尺은 四唐尺이고 舍利孔의 一邊 一·〇〇八尺은 一唐尺이 된다.

⑦ 金禮庚·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의 舍利孔 考古美術六一〇·一二) 參照

皇龍寺九層塔과 周尺

申 榮 勳

皇龍寺에 木造九層塔이 있고 塔의 刹柱에 「鐵盤已上高四十二尺·已下一百八十三尺」이라는 銘文이 기록되어 있었음은 三國遺事(卷三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條)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刹柱記에 記錄되어 있는 尺數가 어떠한 尺度로 測定하였을 때 나타난 數值이고 그 數值를 現用尺과 對比하면 얼마만큼의 크기로 나타나겠느냐는 것이 문제로 되어 왔다.

이것을 밝히기 위하여는 부수되는 여러 문제를 먼저 검토하여야 되었다.

다.

刹柱記가 初版 當初에 記錄되고 후에 그것이 三國遺事に 轉載된 것이니 지 또는 重版을 거듭하면서 어느 때인가 後刻된 것이어서 三國遺事に 採擇된 때쯤에는 造營當初의 尺度와는 다른 내용의 尺數가 表記되었던 것인지의 問題를 검토하여야 한다.

皇龍寺塔은 「請工匠於百濟」키로 하여 百濟人 阿非知가 伊干龍春과 幹巖과 더불어 小匠 二百人을 거느리고 木石을 經營한 것이므로 造營當初의 意匠計劃이 百濟의 尺度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지 신라의 尺度에 따라 樹立되었는지도 문제가 된다. 高麗 顯宗十三年辛酉(一〇二二)에 第四重成 文宗甲辰年(一〇六四)에 第五重成 肅宗丙子(一〇九六)年六重成 되어 오면서 尺度의 變遷이 어떠한지의 考察도 역시 문제가 된다.

百濟·新羅·高麗의 尺度가 皇龍寺塔에 끼친 영향에 따라 適用되어 온 尺數를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의 두가지 要點을 包括하는 問題를 一時에 해석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文獻의 缺乏으로 큰 난관에 부딪치고 當代 造營活動에 使用되었을 尺度에 관한 정확한 關係 遺物이 너적하지 못한 형편이고 그나마 하나 하나를 逐條하지 못하여 그 平均值——즉 尺度의 基本值를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커다란 障壁으로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先學들의 意見도 이러한 전차로 하여서 各樣各色이고 最近에는 從來 學說과는 전혀 다른 尺度를 使用한 것으로 定義하려는 試圖도 있어서 이 문제는 斯界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從來 여러 學者의 諸說을 간주려 보면 使用 尺度를 東魏尺으로 보는 사람과 周尺으로 看做하려는 사람으로 兩分되는 듯하다.

前者를 主張하는 說은 高裕燮·藤島亥治郎兩氏가 代表되고 後者는 概說書이어서 크게 문제될만한 것은 못되지만 최근에 發表한 「韓國美術史」의 金元龍教授를 代表로 삼을만 하겠다.

이 小稿에서는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은 問題 全般을 다룰 수 없는 형편이므로 그 개요만을 살펴보고 金元龍教授가 學論한 周尺에 대하여 조금

살펴 보고자 한다.

一、

高裕燮先生은 皇龍寺塔의 규모에 대하여 「남아있는 礎砌에 의하여推考되는 塔婆의 大는 初層平面이 約 七十三尺 四至로 各柱間이 十尺四寸 強의 七間四面인 四十九間 建物이라 中央에는 幅約 四尺 高二尺七寸五分의 立方形 突起石面 위에 約 六寸前後의 圓形凹穴이 있는 擦柱石이 놓여 있다. 前舉한 文例에 의하면 (三國遺事의 記錄) 總高 二百二十五尺의 塔婆이라 하나 이만한 平面으로서 九層塔이었다면 總高 적어도 三四百尺은 되었으리라」한다고 하고 註를 달아 「이곳에 傳하는 二百二十五尺이란 尺數의 尺度는 現今 우리가 使用하는 曲尺이 아니요 東魏尺이었을 것이니 그 說대로 본다면 現尺으로 近 二百六十尺이 된다」고 하였다. ①

東魏尺에 대한 解釋을 試圖하지 않은채 藤島氏의 說을 따르고 말았다. 藤島氏는 遺存하는 塔址 礎石間을 實測하고 平均値를 求한 후에 東魏尺과 唐尺과를 比較하고 「兩値에 完値를 얻기 어려우나 비교적 東魏尺에 의하는 것이 完尺에 가까우므로 이에 따라 柱間을 九尺이라 한다면 10.409曲尺 ÷ 9 = 1.1566(圓)曲尺이 되니 이는 東魏尺은 아니나 그것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②

金元龍教授는 皇龍寺塔을 說明하여 「本塔은 三國遺事에 의하면 九層 總高 二二五尺이 되었다 한다」하고 註를 달아 「이것은 周尺이고 이것을 現用 曲尺으로 고치면 一四八·五尺이 되며 약 四四·四m 된다. 그러나 이 數字는 相輪部를 포함해서 생각해도 좀 과장된듯 하다」고 三國遺事 記錄 自體를 信用하지 않고 새로이 周尺의 使用을 提唱하였다.

어떻게 하여 周尺으로 把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冊의 性格上의 理由 때문인지 詳論하지 않은채 끝맺어서 周尺의 登場하게 되는 內容은 알 길이 없다.

세 가지 論攷중 檢討의 對象이 될것은 藤島氏說과 金元龍教授의 新學說이다.

柱間實測値에서 얻어진 平均値를 九로 나누었을 때 얻어진 一·一五

六六(弱)曲尺은 藤島氏가 實測하여 얻은 同寺 金堂址의 使用尺으로 推定되는 東魏尺 一尺이 一·一七八二曲尺보다 〇·〇二六尺 적기 때문 에 신라시대 使用 東魏尺이 아닌 다른 尺度라고 보았다.

金堂과 이웃한 塔과 그 使用尺이 다르다면 推定 면저 떠오르는 생각은 阿非知에 대한 기록이다.

百濟人 阿非知가 招聘되어와 技能을 發揮할 때 그 意匠의 基本計劃을 百濟尺度에 의하였고 百濟尺度가 新羅尺도와 다른 것이었다면 당연히 차이가 생겼어야 할 것이다.

三國時代, 三國에서 각기 어떠한 尺度를 사용하였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나 遺物에서의 推定에 의하면 百濟와 新羅는 같은 東魏尺을 썼으면서 그 크기가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식이다.

定林寺址五層石塔을 實測하여 얻은 東魏尺 一尺의 平均値가 一·一五六五曲尺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③

이 平均値 一·一五六五曲尺은 皇龍寺 木塔址에서 얻은 平均値 一·一五六五曲尺과 〇·〇〇〇一曲尺의 아주 근소한 차이——사실은 차이가 없지 않지만——밖에 없어 定林寺址의 百濟塔과 皇龍寺 木造塔은 같은 尺度에 의하여 意匠되었음을 알겠다.

新羅의 匠工이 지은 金堂 등의 諸建物은 新羅型의 東魏尺으로, 木造塔婆만은 招請되어 온 百濟人에 의하여 百濟型의 東魏尺으로 造營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遺址만으로 보아서는 皇龍寺 木造塔이 東魏尺으로 營造되었을 것이라는 意見を 뒤엎고 木造塔은 周尺으로 意匠되었다고 본다고 한 것이 金元龍教授의 新學說이다. 金教授는 新學說에서 周尺도 定義하고 있고 周尺 一尺은 現 曲尺의 〇·六六尺이라 換算하였다. (148.5 ÷ 225 = 0.66) 이러한 周尺은 光武六年(一九〇二)에 度量衡器를 改定할 때 日本의 使用曲尺으로 測定한 것이다.

光武改定 以前の 曲尺은 대략 〇·七曲尺 以上の 길이였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므로 〇·六六曲尺說은 皇龍寺 木造塔이 光武年間에 造營

된 것이 아닌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周尺을 알아 보기 위하여 身邊에 놓인 資料만이라도 잠깐 정리하여 보겠다.

오렐·스타인氏が 王門關址邊에서 發掘한 後漢尺은 〇·七五五七曲尺으로 ④ 武氏祠石闕이나 武氏祠石室 〇·七五八曲尺과 비슷하고 孝堂山石室의 〇·七五二六尺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建初(紀元後 七六年)에 改革한 尺度制 以前の 것으로 보고 建初改革後의 尺度和 비교하기 위하여 隨書의 律曆志에 보이는 것과 對比하여 漢官尺으로 換算하여 보면 〇·七五五六曲尺으로 前者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이 數値는 隨書 律曆志에 기록된 晋前尺이라고 하는 尺度和 그 길이 가 같고 後漢建武(紀元後 二五年) 때의 銅尺이나 王莽尺과도 같으며 더 올라가 周尺과도 그 길이가 같다.

樂浪古墳을 造營한 尺度는 대부분 〇·七五五前後이며 보스톤 美術館藏의 建初鉛尺은 〇·七五〇八曲尺·清代 雍正年間에 倣製한 漢官尺은 〇·七五五曲尺이다. ⑤

周尺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앞의 尺度를 모두 어 말하거나 그와 비슷한 크기를 갖인 尺度를 일컬음이니 朴趾源이

隨書所載歷代銅尺十有五周尺 漢之劉歆銅斛尺 東漢建武時銅尺 晋簡昂律尺 祖冲之銅尺 莫適所用 所謂周尺最不可信 新莽十五年中 凡所制作必倣周爲名 己多虛僞而又復飾心 朝作夕毀 尺度無常 後世名爲周尺者 ⑥

라고 갈파한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에 周尺이 傳來된 것은 일찍부터 이겠으나 그것이 周尺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기 시작하고 流行되기는 後代에 이르러서 비롯되었던 듯 三國時代나 신라統一 初期 初半의 造營物에서는 그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모양으로 별다른 報告가 아직은 없다.

土木工事나 造像活動에 널리 쓰였을 周尺에 대하여 이렇다할 보고가 없으므로 이 期間에 使用된 周尺이 〇·七五五曲尺의 것이었는지 〇·六六曲尺이 었는지는 지금 가려볼 길이 없다.

李朝에서는 周尺을 〇·七五五曲尺이나 〇·七曲尺으로 사용하였던 모양으로 王朝實錄·國朝五禮儀 등에 나타나 있고 高麗大學校博物館藏 銅尺에도 그렇게 눈이 그려져 있다.

周尺뿐 아니라 다른 尺度도 時代에 따라 조금씩 變化하기도 하고 찬 못 만들기도 하여 여러번 바로잡곤 하였는데 肅宗朝에서는 量田尺(准布帛尺)을 戶曹에 新造하여 各道에 下送하였다가 全羅監司 洪錫輔의 異議로 다시 만들어 보내 ⑦ 는 소동을 겪기도 하였을 정도이었다.

周尺의 不同도 만찬가지였다.

昔人於法度之器 必用周尺而校定 尺式自古爲難 子朱子取司馬文正公家石刻本尺法 載之家禮 然家禮板本 行於世者不一 而周尺長短皆不同 亦難爲據 世宗時 許文敬公稠求得陳友諒子陳理家廟神主式 假作尺本 又於議郎姜天霍家 得紙本周尺 乃其父判三司事姜碩第 有元院使金剛所藏象牙尺所傳也 面書云神主尺定式 以今官尺去二寸五分 用七寸五分 即與家禮附註潘時學所云用尺 當今省尺 七寸五分弱之語同 二本相較不差 於是始定尺制 凡士大夫家廟神主與天文漏卮道路里數射場步法 據此以爲定式 後可譚院事趙忠佐赴京買得新造神主來 復以此尺較之 寸分相合 今我國所用周尺 與中國同無疑矣 ⑧

較之한 후에도 또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번의 校正을 겪지만 그 길이는 〇·七曲尺 以上으로 水標橋의 水標 ⑨ 나 神主의 周尺도 그렇게 나타나고 周尺을 사용하여 造營하였다고 보고서에 記錄한 華城 城廓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光武改革以前의 周尺은 대부분 〇·七曲尺 以上の 길이를 갖고 있었음을 이 推定되므로 金教授가 周尺의 換算値로 提示한 〇·六六曲尺은 二〇世紀의 造營物에만 該當될 수 있는 使用尺이지 그 以前의 建造物 使用 尺度로는 쓰여질 수 없는 것이다.

高麗代에 이미 燒盡한 皇龍寺塔에 李朝末의 尺度를 比定한다는 일은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四

周尺의 새로운 확설은 金教授가 周尺을 誤解한 채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四四·四m가 되나 그것도 과장된 듯하다」는
說도 아무런 바탕이 없는 표현에 그치고 말았다.

신라·고려代 重靱을 겪으면서 地上의 木造架構가 變貌하고 그것이
周尺으로 裁斷結構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漢官尺·晋前
尺·唐尺 등이 混用되고 있었을 當代 使用尺을 遺物을 통하여 좀 더 검
토한 후에야 學論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皇龍寺木造塔의 營造用尺은 아
직 遺址에 근거한 東魏尺說에 머물러 있게 된다.

以上에서 皇龍寺塔 造營의 用尺과 그에 부수되는 문제점을 提示하고
새로 등장한 周尺說을 검토하기 위하여 周尺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周尺說은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어서 未備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既往의 東魏尺說을 再檢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문제만은
提起된 셈이다.

皇龍寺木造塔의 復原論을 다루기 위하여는 遺址의 정확한 실측과 解
析을 거쳐야 하고 보다 많은 用尺例를 수집하여야 비로서 立論이 가능
할 것이다.

周尺說의 허망한 霧散은 아직 立論될 바탕이 成熟되지 못하였음을 절
실하게 말하여 주는 것이다.

(一九六八年十月二十二日記)

註

- ① 高裕燮·朝鮮塔婆의 研究 第一章 木造塔婆條·一九四八年 乙酉 文化社刊
- ② 藤島亥治郎·朝鮮建築史論 第三章 皇龍寺條·建築雜誌五三二號
- ③ 米田美代治·朝鮮上代建築の研究 扶餘百濟五層石塔の意匠計劃·一九四四年刊
- ④ 坪井九馬三·支那古地理志の解釋に就いて·考古學雜誌一一の五號
- ⑤ 國立博物館藏 白銅製尺(三四九二號)
- ⑥ 燕岩 朴趾源·熱河日記 忘羊錄條
- ⑦ 韓治勛·一八世紀前半期에 있어서의 韓國社會經濟面에 對한 一考察·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七輯

- ⑧ 徐居正·筆苑雜記 卷之二
- ⑨ 朴興秀·李朝尺度에 關한 研究·大東文化 第四輯

扶蘇山 出土 百濟 銅製燈蓋

金 永 培

一九六八年 八月二十七日 扶蘇山에서 銅製燈蓋가 發見되었는데 그概
要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扶餘博物館에서 扶蘇山 登路를 따라約二百m쯤 올라가면 左便으로 扶
蘇山 西腹寺址가 있고 寺址의 北便 隣接한 곳에 上水道의 淨水場이 施
設되어 있는데 이곳이 過去부터 寺院址로 推察되던 발이 있어서 이것을
「鄉校밭」이라고 불러 왔다. 여기서 조그마하고 예쁜 百濟時代 蓮華文瓦
當이 몇개 發見된 일이 있고(現在 扶博에 陳列) 몇年前에는 또 金銅製
小佛像이 發見되었으나 發見者가 兪장수에게 주었다는 傳言을 남기고 있
어서(洪思俊氏의 말) 發掘調査가 要請되었으나 上水道施設關係로 今年
여름에 全部 埋沒되어 버린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런데 鄉校밭 언덕밑
에 조그마한 발이 또 하나 있는데 耕作者(扶餘邑 舊校里 三〇番地 金
寄福氏)가 발을 다루다가 언덕 밑에서 偶然히 銅製燈蓋片을 發見하였다.
發見된 場所를 考察하여 보면 이 遺物이 當初부터 이곳에 埋置되었던 것
이 아니고 鄉校밭에 묻혀있던 것을 그곳 耕作者가 出土되니까 無心코 주
어서 언덕 밑에 버리었던 것이 흙에 묻혀있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類例가 없을 뿐만 아니
라 製作手法이 아주 精巧하여 百濟時代 燈籠樣式을 考察하는데 좋은資
料가 될 만하다.